

일본, 18호 태풍 피해 상황

- 동북지역 양배추, 배추 타격 예상 -

오사카지사 자체기획단신 28호 (2015.9.14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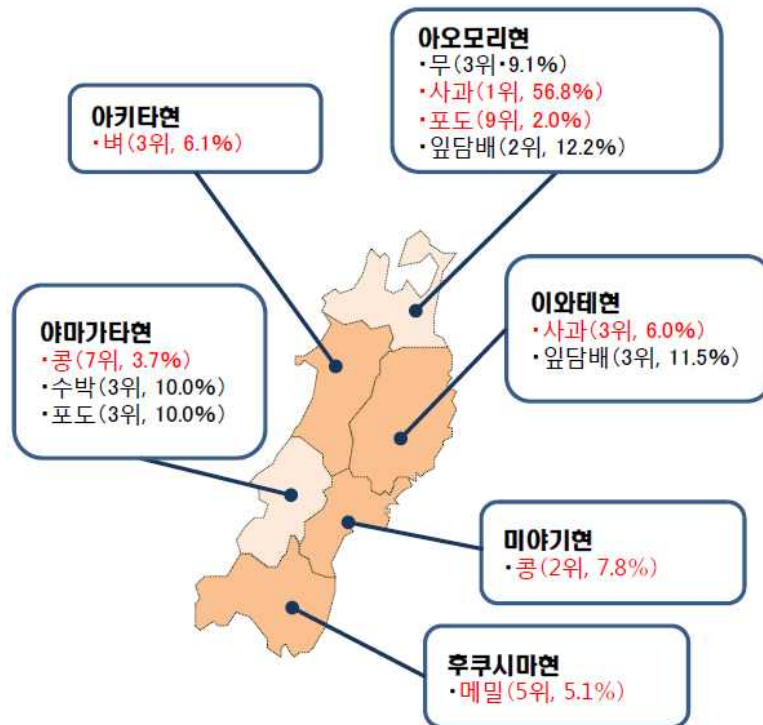
태풍 피해 현황

- 태풍 18호는 9월 9일 밤부터 10일에 걸쳐 일본 토치기현, 이바라키현, 미야기현 등 동북지방에 기록적인 폭우를 동반하며 막대한 피해를 줌
- 현재 동북지방 농산물 피해는 파악 중이지만, 동북지방은 일본 농작물 생산에 있어서 콩, 메밀, 배추 등의 주 생산지역임
 - 미야기현은 12일 태풍 18호에 의한 폭우로 농업관련 피해상황을 취합한 결과, 12일 오전 9시 현재 농작물 피해는 벼, 대두, 채소류 침수 등 16개 시정촌에 걸쳐 4,533ha로 확인

농작물 시장 동향

- 이번 피해로 도쿄중앙도매시장 농산물 도매 현황은 10일 현재 양배추가 1kg 당 전년대비 61% 상승한 137엔에 거래되고 있음.
 - 관동지방 등의 일조부족으로 봄부터 고가격이 계속되고 있는 중에 주산지 군마현에서 8월초 우박으로 인해 생육지연이 되고있는 중 태풍피해가 가중된 상황임
- 또한 피망가격은 전년대비 46% 상승한 519엔에 거래되고 있음. 특히 8월 후반부터 가을장마로 인해 저온현상이 영향을 준 것도 있음. 그 외 가지는 전년대비 45% 상승, 오이와 참마는 동 41% 상승, 배추는 동 33% 상승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음
- 토치기현은 9월 상순부터 가지 출하가 일본 점유 31%, 이바라키현은 가지 출하가 일본 점유 22%이며, 피망은 이 시기 일본 출하의 25%를 차지하고 있기에 피해 확산이 우려됨

【참고 : 일본 동북지방 주요 농작물 생산 및 유통현황】



※ '14년 오사카지사 자연재해 보고서 참고

시사점

- 일본 태풍 18호 피해는, 일본의 8월부터 시작된 가을장마로 일조량 부족 및 가을채소류 생육지연 등과 겹쳐서 생산차질이 지속 예상
 - 특히, 이번 피해지역인 동북지역의 가을채소는 양배추, 배추, 피망 등의 주 산지로서, 한국산 채소의 수요발생 가능성 존재
 - '14년 한국산 양배추 8,148톤 수입(일본 수입 2위)
 - '14년 한국산 배추 84톤 수입(일본 수입 2위)
 - '14년 한국산 파프리카 23,768톤 수입(일본 수입 1위)
- ※ 일본 농림수산성 통계참고
- 수입업체를 통한 수요조사 등으로 긴급히 대처하여 수출확대 방안 모색이 요구됨

[문의 : 오사카지사 조대성 / dscho34@gmail.com]